

Session 26 Experiencing Grace in Divine Discipline (2 Sam. 15-16) 제 26 장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함 (삼하 15-16 장)

I. DAVID FLED FROM JERUSALEM (15:13-37) OR (15:13-16:14)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다 (15:13-27 또는 15:13-16:14)

- A. The story of David leaving and returning to Jerusalem is very dramatic. It was the most dangerous season in David's 40-year reign, one in which both his life and throne were threatened. In this season he experienced both *adversity* from his enemies and *blessing* from friends—some old and some new. The second half of 2 Samuel 15 gives us a picture of friendship as seen in *Ittai* (15:19-23), *Zadok*, *Abiathar* (15:24-29), *Hushai* (15:30-37), and more. In times of distress we can imagine that our enemies are more numerous and friends fewer than they actually are.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는 매우 극적이다. 이 기간은 다윗이 다스리던 40 년의 기간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지위가 동시에 위협을 받는 가장 위험한 시즌이었다. 이 시즌 동안 그는 대적들로부터 받은 **역경**과, 친구들(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로부터의 **축복**을 모두 경험했다. 삼하 15 장의 후반부는 잇대 (15:19-23), 사독, 아비아살 (15:24-29), 후새 (15:30-37) 등과의 우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고통스런 시간에 우리는 대적들이 실제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고 친구들은 더 적다고 느낄 수 있다.

- B. The second half of 2 Samuel 15 sets forth the combination of sorrow and blessing while being under God's hand of discipline. In David's youth, he modeled how to endure difficulty related to righteousness, and now we see how he endured difficulty related to being disciplined for his sin.

삼하 15 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징계 하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축복의 조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다윗이 젊은 시절을 통해 의로움을 추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볼 수 있고, 지금은 그의 죄과에 대한 징계로 인한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볼 수 있다.

- C. David saw God's hand of discipline in some of his adversity; thus he yielded to the Lord with godly sorrow, humility, and gratitude for the mercy that he received. Here in the most difficult hour of David's kingship, we see his humility, kindness, and gratitude as he still entrusted or committed himself to whatever the Lord wanted, just as he did in his youth when being afflicted by King Saul (1 Sam. 24:12, 15; 26:9-11, 23-24; 2 Sam. 2:1; 15:25; 16:11-12; 1 Chr. 12:17; 19:13; Ps. 31:5, 15).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며 징계하시는 손길을 발견했으며, 그는 하나님께 경건한 애통함, 겸손, 그리고 그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갔다. 여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서, 우리는 그가 젊었을 때 사울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처럼, 그가 여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자신을 맡겨드리고 헌신함으로 겸손과 자비,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상 24:12, 15; 26:9-11, 23-24; 삼하 2:1; 15:25; 16:11-12; 대상 12:17; 19:13; 시 31:5, 15).

²³...*who, when He [Jesus] was reviled, did not revile in retur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 2:23)

²³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 D. The crisis created by Absalom's rebellion caused the hearts of many to be openly revealed. Many responded to David with a loyal heart unmoved by Absalom's charms and manipulation. People with a heart of loyalty can easily discern the manipulation of ambitious men like Absalom!

압살롬의 반역으로 발생한 위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수면 뒤로 드러나도록 했다. 많은 이들은 압살롬의 매력과 조종에 동요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심으로 반응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야망이 있는 자들의 조종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¹⁹*There must be factions among you, that those who are approved may be recognized among you. (1 Cor. 11:19)*

¹⁹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전 11:19)

- E. David fled from Jerusalem to spare the city from destruction by Absalom's attack (15:13-15).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 성읍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다 (15:13-15).

¹³*Now a messenger came to David, saying,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are with Absalom." ¹⁴*So David said to all his servants who were with him at Jerusalem, "Arise, and let us flee, or we shall not escape from Absalom. Make haste to depart, lest he overtake us suddenly and bring disaster upon us, and strike the city with the edge of the sword." (2 Sam. 15:13-14)**

¹³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¹⁴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삼하 15:13-14)

- F. David acted quickly, leaving Jerusalem to save both the royal family and royal city (15:16-18). The first group to commit to stand with David was the *Cherethites and Pelethites* (his bodyguard) along with *Ittai* and his 600 *Gittite* soldiers who joined David when he was in Gath.

다윗은 신속히 움직여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왕가와 도시를 보존할 수 있었다 (15:16-18). 다윗의 편에 서기로 헌신한 첫 번째 그룹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그의 경호원) 및 잇대와,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군사들 600 여 명이였다.

¹⁶*The king went out with all his household after him. But the king left ten women, concubines, to keep the house. ¹⁷*And the king...stopped at the outskirts. ¹⁸*Then all his servants passed before him; and all the Cherethites, all the Pelethites, and all the Gittites, six hundred men who had followed him from Gath... ²²*Then Ittai the Gittite and all his men...crossed over. ²³*And all the country wept with a loud voice... The king himself also crossed over the Brook Kidron... (2 Sam. 15:16-23)*****

¹⁶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¹⁷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벧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¹⁸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육백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²²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 ²³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삼하 15:16-23)

- G. The second group to commit to David was Zadok, Abiathar, and all of the Levites (15:24-26). David had confidence in them to be his informants—telling them where he intended to go (15:28). If they betrayed him, it would be his death. How blessed to have trusted friends in a time of trouble!

다윗이 편에 서기로 헌신한 두 번째 그룹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었다 (15:24-26). 다윗은 그들을 정보원으로 여길 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디로 갈지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15:28). 그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다. 고난의 때에 신뢰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²⁴There was Zadok also, and all the Levites with him, bea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²⁵Then the king said to Zadok, “Carry the ark of God back into the city. If I fi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He will bring me back...” ²⁶But if He says thus: ‘I have no delight in you,’ here I am, let Him do to me as seems good to Him.”... ²⁷The king also said to Zadok the priest, “...Return to the city in peace, and your two sons with you, Ahimaaz your son, and Jonathan...” ²⁸See, I will wait in the plains of the wilderness until word comes from you to inform me.” (2 Sam. 15:24-28)

²⁴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 ²⁵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²⁶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²⁷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²⁸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삼하 15:24-28)

- H. **Carry the ark back:** David was aware that there was much more to Absalom’s rebellion than what was happening in his family and political conflicts—he recognized God’s discipline in his life. He refused to “use” the ark, knowing having it would have strengthened his support from the people.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는 그의 가정사나 정치적 갈등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훈계임을 깨달았다. 그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치 않았다.

- I. David entrusted himself to God’s favor, not to man’s support. He committed the outcome of his cause to God’s sovereign will, trusting in His goodness. The more we can see and trust in God’s kindness and intervening hand in the midst of our trouble, the more at peace we will be.

다윗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겼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바라며 신뢰할 수록, 우리는 더 평강을 누릴 것이다.

- J. David ascended out of the Kidron Valley to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when he stopped to worship and pray (15:30-32). Mt. Olivet was only a few hundred yards from the City of David. There he received bad news that Ahithophel, his most valued counselor, had joined the conspiracy. Ahithophel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en in David's government. The report that Ahithophel joined Absalom's conspiracy was devastating—he gave the rebellion sanction and legitimacy. While in worship, David looked up to see Hushai, another influential leader, come to support him.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멈춰섰다 (15:30-32). 감람산은 다윗성에서부터 몇 백 야드(몇 백 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서 다윗은 그가 가장 아끼는 조연자인 아히도벨이 모반에 합류했다는 나쁜 소식을 들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한다는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가 이 반역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합법성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그는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후새가 자신을 지지하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³⁰So David went up by the Ascent of the Mount of Olives, and wept as he went up; and he had his head covered and went barefoot... ³¹Then someone told David, saying, "Ahithophel is among the conspirators with Absalom." And David said, "O LORD, I pray, turn the counsel of Ahithophel into foolishness!" ³²... When David had come to the top of the mountain, where he worshiped God—there was Hushai coming to meet him... (2 Sam. 15:30-32)

³⁰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 발로 울며 가고 ... ³¹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³²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 가 ...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삼하 15:30-32)

²³Now the advice of Ahithophel...was as if one had inquired at the oracle of God. So was all the advice of Ahithophel both with David and with Absalom. (2 Sam. 16:23)

²³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삼하 16:23)

II. DAVID PRAYED WITH ANGUISH YET WITH CONFIDENCE IN GOD (PS. 41 AND PS. 55)

다윗은 고뇌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시 41, 55 편)

- A. Psalm 41 and 55 are commonly understood to have been written in context of Ahithophel's betrayal of David. Ahithophel's betrayal was a prophetic picture of Judas' betrayal (Mt. 26:50; Jn. 13:18; Acts 1:16-17). Both were close friends of their master, but in a time of crisis they were disloyal in hope of personal gain, and both hung themselves after seeing that they miscalculated the situation.

시 41 편과 55 편은 일반적으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히도벨의 배반은 유다가 배반하는 모습을 (마 26:50; 요 13:18; 행 1:16-17)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주와 가까운 친구였으나 위기의 때에 개인적 야망 때문에 의리를 저버렸고 자신의 계산대로 되지 않자 둘 다 스스로 목을 뗐다.

¹⁸"...Scripture may be fulfilled, "He who eats bread with Me has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Jn. 13:18)

¹⁸...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 13:18)

- B. Betrayal is usually not a spontaneous act, but it is a habit of life that is exposed by a crisis. It is not easy to detect because it starts as an “innocent” desire for something good to happen in our lives, then someone (parent, child, spouse, associate, pastor, or boss) disappoints us and starts the process.

배반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기보다 평소에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것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기 원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되지만, 누군가 (부모, 자녀, 배우자, 동료, 목회자, 혹은 상사) 우리를 실망시킬 때 이것이 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 C. David cried to the Lord for mercy in the face of a most painful betrayal by Ahithophel (Ps. 41).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반이라는 가장 고통스런 상황 앞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다 (시 41 편).

⁴I said, “LORD, be merciful to me; heal my soul,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⁷All who hate me whisper together against me; against me they devise my hurt. ⁸“An evil disease,” they say, “clings to him...”⁹Even my own familiar friend [Ahithophel/Judas] in whom I trusted, who ate my bread, has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¹⁰But You, O LORD, be merciful to me...¹¹By this I know that You are well pleased with me, because my enemy does not triumph over me. ¹²As for me, You uphold me in my integrity, and set me before Your face forever. (Ps. 41:4-12)

⁴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⁷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⁸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 ⁹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아히도벨/유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¹⁰ 그러하오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 ¹¹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¹²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 41:4-12)

- D. David expressed the pain of Ahithophel’s betrayal, yet he put his confidence in God (Ps. 55).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시 55 편).

⁴My heart is severely pained within me... ⁵Fearfulness and trembling have come upon me, and horror has overwhelmed me. ⁶So I said, “Oh, that I had wings like a dove! I would fly away and be at rest. ⁷Indeed, I would wander far off, and remain in the wilderness...”⁹Destroy, O Lord, and divide their tongues...¹²For it is not an enemy who reproaches me; then I could bear it...¹³But it was you [Ahithophel/Judas]...my companion [friend]...¹⁴We took sweet counsel together, and walked to the house of God in the throng...¹⁷Evening and morning and at noon I will pray, and cry aloud, and He shall hear my voice. ¹⁸He has redeemed my soul in peace from the battle that was against me...²⁰He [Ahithophel] has put forth his hands against those who were at peace with him; he has broken his covenant. ²¹The words of his mouth were smoother than butter, but war was in his heart; his words were softer than oil, yet they were drawn swords. ²²Cast your burden 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you...²³I will trust in You. (Ps. 55:4-23)

⁴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 ⁵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⁶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⁷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⁹ ...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¹²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 ¹³ 그는 곧 너로다 [아히도벨/유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¹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¹⁷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¹⁸ ...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²⁰ 그는 [아히도벨]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²¹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²²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 ²³ ...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III. DAVID ENCOUNTERED TWO MEN: KINDNESS AND CURSING (2 SAM. 16:1-14)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나다: 친절과 저주 (삼하 16:1-14)

- A. David spoke to two men from the house of Saul—Ziba (16:1-4) and Shimei (16:5-14). Ziba brought necessary provisions to David, while Shimei cursed David—yet David treated both kindly.

다윗은 사울 집안의 두 사람, 시바(16:1-4)와 시므이(16:5-14)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시바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다. 다윗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 B. Walking a short distance from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David met Ziba (16:1-4).

다윗은 감람산 꼭대기를 조금 지나서 시바를 만났다 (16:1-4).

¹When David was a little past the top of the mountain, there was Ziba the servant of Mephibosheth, who met him with a couple of saddled donkeys, and on them two hundred loaves of bread, one hundred clusters of raisins, one hundred summer fruits, and a skin of wine. (2 Sam. 16:1)

¹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삼하 16:1)

- C. Shimei cursed David verbally and physically. He threw stones as if symbolically killing David for killing God’s anointed—Saul, Jonathan, and Ishbosheth (16:5-8). Shimei was from the royal house of Saul. Bahurim was a Benjamite village only 2 miles from Jerusalem (19:16; 1 Kgs. 2:8).

시므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 다윗을 저주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것에 대해, 그는 마치 상징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 같은 모양으로 그에게 돌을 던졌다 (16:5-8). 시므이는 사울의 왕가에 속한 자였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2 마일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다 (19:16; 왕상 2:8).

⁵Now when King David came to Bahurim, there was a man from the family of the house of Saul, whose name was Shimei...He came out, cursing continuously as he came. ⁶And he threw stones at David...All the people and all the mighty men were on his right hand and on his left. ⁷Also Shimei said thus when he cursed: “Come out! Come out! You bloodthirsty man, you rogue! ⁸The LORD has brought upon you all the blood of the house of Saul...the LORD has delivered the kingdom into the hand of Absalom your son. So now you are caught in your own evil...” (2 Sam. 16:5-8)

⁵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⁶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⁷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⁸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삼하 16:5-8)

- D. It looked as if David's kingdom was falling apart and would soon be over. Shimei prematurely misinterpreted the events as God bringing David's reign to an end. This kind of prophecy is popular today; there are many contemporary "Shimei-prophets," announcing God's judgment on others.

다윗의 왕국은 망해서 이제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끝내고 계신다고 이 사건을 미성숙하게 잘못 해석했다. 오늘날 이러한 예언이 많이 퍼져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현대의 많은 "시므이 예언자들"이 있다.

- E. David restrained Abishai in his desire to kill Shimei for cursing David (16:9-12).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아비새를 말렸다 (16:9-12).

⁹Then Abishai the son of Zeruiah said 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Please, let me go over and take off his head!" ¹⁰But the king said, "...So let him curse, because the LORD has said to him, 'Curse David.'"... ¹²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my affliction, and that the LORD will repay me with good for his cursing this day." (2 Sam. 16:9-12)

⁹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¹⁰왕이 이르되 ...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 ¹²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삼하 16:9-12)

1. Abishai only saw what was happening outwardly without seeing God's hand at work. Abishai wanted a quick solution to the Shimei problem—"Let me take off his head."

아비새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었다. 아비새는 시므이라는 문제거리를 빨리 처리하기만 원했고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했다.

2. David restrained Abishai and allowed Shimei to continue his outrageous conduct. David was listening for the voice of God even in Shimei's harsh words against him. David looked for God's hand even in circumstances causing him pain.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시므이가 꽤 씩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는 시므이의 가혹한 말들에서 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있었다.

3. David reasoned that the Lord might have sent Shimei to curse David (16:10). If it were from the Lord, then the Lord would bless David as he responded in humility in the face of cursing.

다윗은 주님께서 시므이를 보내셔서 자신을 저주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16:10). 만약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다윗이 저주를 받는 상황에도 겸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것이다.

4. David's refusal to stand against Shimei or Absalom was not due to David's weakness, but rather his spiritual strength and confidence in God.

다윗이 시므이나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IV. DAVID WAS IMPACTED BY TWO MEN: LOYALTY AND BETRAYAL (2 SAM. 16:15-23)

다윗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음: 충성과 배신 (삼하 16:15-23)

- A. David was impacted by two men from his court—*Hushai* (16:15-19) and *Ahithophel* (16:20-23).

다윗은 그의 궁정에 있던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 후새 (16:15-19)와 아히도벨 (16:20-23).

- B. Absalom arrived in Jerusalem just as David was leaving on his way to the Jordan River (16:15-19). Absalom sought the advice of Ahithophel and Hushai as the two most influential voices in his new war council. Hushai's advice was significant in David escaping from Absalom.

다윗이 요단 강을 향해 떠났을 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16:15-19).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새의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이 새로운 전쟁 참모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후새의 조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¹⁵Meanwhile Absalom...came to Jerusalem...¹⁶And so it was...that Hushai said to Absalom, "Long live the king..."²⁰Absalom said to Ahithophel, "Give advice as to what we should do."

²¹And Ahithophel said to Absalom, "Go in to your father's concubines...all Israel will hear that you are abhorred by your father. Then the hands of all who are with you will be strong."

²²So they pitched a tent for Absalom on the top of the house, and Absalom went in to his father's concubines in the sight of all Israel. ²³Now the advice of Ahithophel...was as if one had inquired at the oracle of God. So was all the advice of Ahithophel both with David and with Absalom.

(2 Sam. 16:15-23)

¹⁵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 ¹⁶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²⁰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²¹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²²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²³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삼하 16:15-23)

- C. Ahithophel counseled Absalom to pitch a tent and have sex with David's concubines at David's house—the place where David committed adultery with Ahithophel's granddaughter, Bathsheba.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집 지붕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도록 조언했는데, 그곳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손녀인 밋세바를 범했던 장소였다.

¹¹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raise up adversity against you from your own house; and I will take your wives before your eyes and give them to your neighbor, and he shall lie with your wives in the sight of this sun. ¹²For you did it secretly, but I will do this thing before all Israel...’ (2 Sam. 12:11-12)

¹¹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¹²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삼하 12:11-12)

⁷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at he will also reap. (Gal. 6:7)

⁷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